

영상
커뮤니케이션
강의자료

—영상지각—

김경환 /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 kimkw-10@sangji.ac.kr, 010-4767-1434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 일본 조치대학교 신문학과 언론학 석사/박사

1. 지각=착시현상

□ 가현운동

- 객관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데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현상공간상의 위치는 정지해 있으나 일정한 시간적 간격에 의해 공간상의 위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느끼는 현상
- 운동의 지각, 특히 시각에 있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객관적 운동이 없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조건 아래서 발생. 흔히 시간적으로 계속적인 자극의 경우, 운동은 공간적 성질을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달리 보이게 한다. 따라서 운동의 지각에는 시간적 성질이 반영됨을 실증(實證)할 수가 있다. 이것은 경반운동(驚盤運動)이나 키네마성 운동(kinematoskopische Bewegung)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M. 베르트하이머의 실험이다. 2개의 대상을 계속적(繼時的)으로 영사(映寫)하면 그동안에 운동이 보인다. 간격이 너무 좁으면 하나로 보이고 적당한 간격이면 잘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며, 길어지면 처음과 끝만의 부분운동이 보이고 더욱 길어지면 대상이 움직였다고 느끼지 못하며 그보다 더 길면 2개의 대상이 별개로 보인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속하여 일어나는 시각적 자극에 의한 운동만이 보이는 것을 베르트하이머운동이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이 생기는 것은 시간간격 외에도 노출시간, 자극의 위치와 강도, 자극의 크기에 의하여 지배된다. 가현운동이 최량(最良)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A. 코르테의 법칙이 알려져 있다. 가현운동은 이 밖의 예로 필러-라이어의 도식(圖式)을 투사(投寫)하여, 외향(外向)한 가지[枝]와 내향한 가지를 교체시키면 기선(基線)의 신축이 보이는 것, 또는 도형이 사라질 때 수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등이 관찰되었다. K. 코프카는 전자를 α 운동, 후자를 운동이라 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반운동을 β 운동이라 하였다. 경반운동은 촉각이나 청각의 영역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있다. 빛은 일상에서의 밝고 어두움, 명암의 변화로 우리의 생리적 시계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종의 생물들은 동굴로 들어가 동면을 하도록 만들고, 바다를 건너 어디론가 날아가야 할 것



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빛이 없다면 계절도 식물도 생명도, TV와 영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

□ 영상 인지와 잔상

○ 잔상

- 자극이 제거된 후에도 시각기관에 어떤 흥분상태가 계속되어 시각작용이 잠시 남는 현상

○ 양성잔상

- 시각은 자극광(戟光)과 같은 감각이 남는 것으로서, 비교적 강한 자극을 단시간 받았을 때 생김. 영화나 텔레비전의 영상은 양성잔상을 이용

○ 음성잔상

- 음성잔상은 자극을 받은 빛과는 명암이 반대가 되어 그 색의 보색이 나타나는 것을 음성잔상이라 하며, 보통 정도의 강도를 장시간 응시했을 때 생김. 각기 다른 색을 나란히 놓았을 때 그 각각의 색은 그것이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빛 깔이 옆에 있는 색의 보색에 접근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현상. 음성잔상의 이 현상은 색상의 대비(對比)라고 하며, 배색효과를 살리는 데 극히 중요

○ 엠페르트의 법칙

- 잔상의 크기는 투사된 면까지의 현상적 거리(現象的距離)에 영향을 받으며, 거리에 정비례하여 증감

○ 운동잔상

- 다리 위에서 강물의 흐름을 장시간 응시한 후 갑자기 다리 위로 눈을 돌리면 다리의 표면이 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한 운동이 나타난다. 이 현상을 운동잔상(運動殘像)이라고 한다. 운동잔상이 생기려면 일정 시간 동안 망막상을 상이 동일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